



보도 일시	2022. 8. 24.(수) 06:00 < 8.24.(수) 석간 >	배포 일시	2022. 8. 23.(화)
담당 부서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280)
		담당자	서기관 박병기 (044-203-4281)

산업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에 팔 걷어붙여

- 섬유패션의 지속가능성 전환(SX), 정책 간담회 개최 -
- 국내 패션브랜드 50개사, 친환경 패션 이행 공동 선언 -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주요 섬유패션기업 대표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8.24(수) 10:00, 서울 코엑스 301A홀
- 참석자 : 산업부 장영진 1차관, 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 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 영원무역 성래은 대표, 우성염직 구홍림 대표 등

- 세계 섬유패션 시장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 확산, 글로벌 패션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등으로 인해 친환경·리사이클 패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섬유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10%, 수질오염의 20%, 해양미세플라스틱의 20~35% 차지

* 나이키, 아디다스 등 32개 글로벌 패션기업은 '30년까지 100% 친환경 섬유 사용 및 재생 에너지 전환 협약인 Fashion Pact 체결('19.8월 G7정상회담), 현재 76개사 참여

**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은 '21년 489억불 → '30년 1,019억불로 연평균 8.5% 성장하고, 전체 섬유시장에서의 비중도 '21년 4.9% → '30년 7.2%로 증가

- 반면, 국내 친환경 섬유패션 규모는 1조원*으로 추산돼 전체 내수의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인식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친환경 소재는 버진 대비 1.5~2배), 낮은 친환경 브랜드 인지도 등에 막혀 실제 구매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업계는 국내 친환경 섬유패션의 시장 규모를 약 1조원, 전체 시장의 약 2%로 추정

- 또, 생분해·재활용 섬유 관련 기술력 부족, 폐의류 재활용 시스템 미비 등도 국내 친환경 패션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 장영진 1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친환경 섬유패션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에 비유될 수 있는데, 탄소중립과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우리 섬유패션업계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 우리나라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듯이, ‘친환경 섬유패션이 중국, 동남아 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의 선제적 투자’를 당부했다.

- 아울러, ‘정부는 섬유패션업계의 지속가능성 전환(SX)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 등 친환경 섬유시장 확대, △생분해·리사이클 등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폐의류 등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서는 국내 친환경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 친환경 섬유패션 수요 창출

- 국내 패션기업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조달 등에서 친환경 섬유제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

* 간담회에 앞서 국내 패션브랜드 50개 업체가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 개최

- 수출 중소기업의 친환경 원단 개발 및 시제작,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해외 유명 전시회 출품 등 지원

*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납품기업에 블루사인, 리사이클 표준(GRS) 등 인증 획득을 요구

● 친환경 소재 개발 및 공정 혁신

- 생분해·바이오매스 섬유, 물을 쓰지 않는 염색가공, 폐섬유의 화학적 분리 및 재생* 등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재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물리적 재활용 수준이나, 화학적 재생기술 개발 시 혼방섬유의 소재별 분리·재생이 가능해져 폐섬유 재활용의 획기적 전기 마련 예상

-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고효율 설비(폐열회수 등)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스팀 사용량이 많은 염색산단의 발전설비를 그린에너지*로 전환

* (예) 대구 염색산단의 유연탄·LNG 발전설비의 수소연료전지 등 전환에 공감대 형성

● 자원순환형 섬유패션 생태계 조성

- 패션브랜드 매장을 활용한 헌옷 수거-재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봉제업체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 쉽게 분리 수거되도록 원단 소재의 성분 표시제** 도입

* (해외사례) H&M은 전세계 매장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중고의류를 수거하고 재사용, 업사이클, 기부 등에 활용

** 원단에 면, 폴리에스터 등 소재 성분을 표시하여 자투리 원단 수거 시 혼동 방지

- 친환경·리사이클 소재에 관한 패션기업의 라이브러리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양성도 지원

* 나이키는 친환경 소재의 컨셉, 컬러, 매칭 가이드 등을 담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

- 간담회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지오다노 등 국내 주요 패션브랜드 50개 업체는 △친환경 소재 사용의 지속 확대,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확대, △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가졌다.

*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에 참여한 패션기업 리스트는 붙임3 참고

- 이번 선언에 참여한 블랙야크는 금년 출시 일부 제품의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을 40%로 확대할 계획이며('23년은 50%), 코오롱스포츠는 내년까지 전체 상품의 절반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이랜드월드(스파오)는 내년까지 데님 제품을 100% 친환경 소재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 패션 선언에 추가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eafashion.org)를 통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 한편, 이날 코엑스 A홀에서 열린 국내 최대의 섬유 소재·원단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PIS) 2022*에서도 지속가능한 패션을 테마로 친환경·리사이클 관련 소재와 의류가 집중 조명됐다.

* 국내외 311개사(국내 241개사, 해외 70개사), 총 522부스 참가 (8.24-26)

- 효성티앤씨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으로 만든 폴리에스터 섬유인 ‘리젠 코리아’와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를 가공해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인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를 선보였고,

* 기존 스판덱스와 비교할 때 물 사용량은 39%,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 감소

- 코레쉬텍은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를 소개했고, 태광산업은 폐의류를 수거해 재활용한 양말과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조한 야구 유니폼을 전시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폴리에스터의 15%에 불과하며 6개월 내 90% 이상 자연 분해

- 또, 국내 유명 디자이너 2인*과 15개 친환경 섬유소재 기업이 협업하여 제작한 친환경 의류 패션쇼가 열려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 ‘디앤티도트’ 박환성 디자이너(패션협회 선정 ‘월드스타 디자이너’ 톱5)

‘두칸’ 최충훈 디자이너(22년 파리패션위크 참가, 대한민국패션품질대상 여성부문 대상)

□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친환경·저탄소화 이행 방안과 함께 디지털 전환, 산업용 섬유 등 주제를 포괄하는 섬유패션산

붙임1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EU 등의 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패션기업의 친환경 선언* 등으로 친환경·저탄소화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

* 글로벌 기업 32개사는 '30년까지 100% 친환경 소재 및 재생에너지 사용 협약체결(19)

- 이에, 민관이 함께 작업하여 마련한 「섬유패션 친환경·저탄소화 전략(초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

□ 행사 계획(안)

- 일시/장소: 8.24.(수) 10:00~10:55, 서울 코엑스 301A홀
- 참석자: 산업부 1차관, 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 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 영원무역 성래은 대표, 우성염직 구홍림 대표 등
- 내용: △패션기업 친환경 이행 공동 선언, △친환경 섬유패션 간담회, △PIS 2022 개막식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	10:00~10:05 (5')	▶ 패션기업의 친환경 패션 이행 공동 선언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	10:05~10:55 (50')	▶ 모두 발언	산업부 1차 관
		▶ 섬유패션 친환경·저탄소화 전략 방향 발표	섬산련
		▶ 자유 토론	참석자
PIS 2022 개막식	11:00~11:55 (55')	▶ 프리뷰 인 서울 2022 개막식 - 개막 세러모니, 친환경 패션쇼, 전시회 참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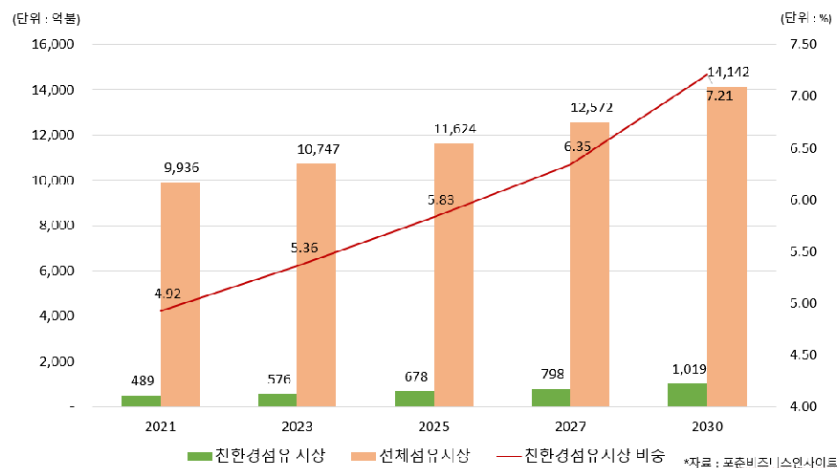
붙임2

글로벌 친환경 섬유 시장 및 기업 동향

글로벌 시장

친환경 섬유 시장규모는 2021년 489억불(전체 섬유시장의 4.9%)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30년 1,019억불(7.2%)로 성장 전망(연평균 8.5% ↑)

< 세계 섬유시장 중 친환경 섬유 비중 >



글로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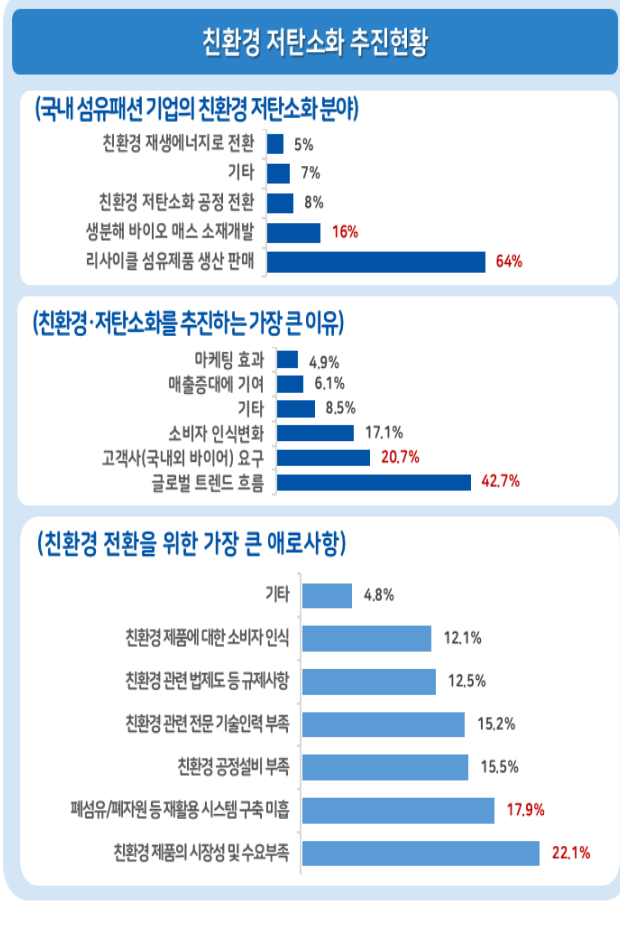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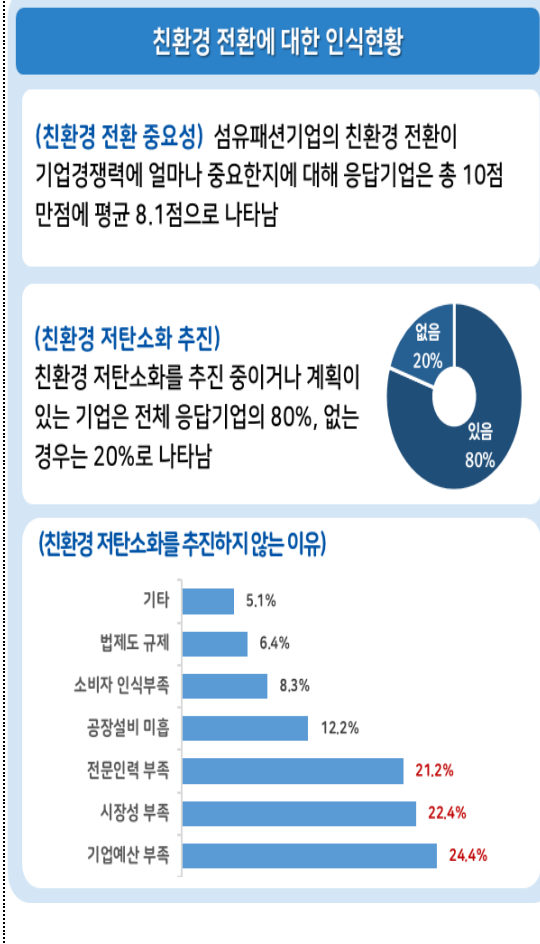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패션기업 및 자동차 등 수요기업들은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섬유 사용 확대 추진

글로벌 패션기업 친환경 섬유 확대 계획		(H&M) '30년까지 지속가능 소싱 및 재활용한 소재를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
		(나이키) '25년까지 리사이클 소재를 80% 이상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계획
		(ZARA) '25년까지 의류에 사용되는 섬유소재를 친환경·리사이클 섬유소재로 대체 계획
		(아디다스) '24년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를 100% 리사이클 소재로 대체
글로벌 자동차 기업 친환경 섬유 확대 계획		(BMW i3 모델) 직물시트를 재활용한 섬유소재와 페페트 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해 제작
		(GM) '30년까지 최소 50%의 차량 내외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계획
		(볼보) '25년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내장재를 최소 25% 이상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해 생산
		(아우디) 자동차 시트에 사용된 섬유소재를 100% 리사이클 섬유소재로 대체할 계획

<참고> 국내 섬유패션기업 친환경인식 조사결과('22.7월, 섬산련)

- ◇ 국내 섬유패션업계 292개사를 대상으로 섬유패션 친환경 전환관련 설문조사 진행
- 80% 이상의 기업이 친환경 전환의 중요성 인식
 - 친환경 제품의 시장성 및 수요부족(22%), 재활용 시스템 구축 미흡(18%) 등이 주요 애로사항

< 친환경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붙임3 친환경 선언 패션기업 리스트

□ 참여기업 : 총 50개사

* 지오다노/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영원무역/LF/한섬/K2코리아/F&F/이랜드월드/힐라코리아/비와이엔블랙야크/슈퍼리어/지엔코/한세엠케이/신성통상/위비스/한성에프아이/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보끄레머천다이징/신원/패션플랫폼/아이디룩/네파/던필드그룹/린에스앤제이/밀앤아이/더캐리/이상봉/비건타이거/랭앤루/나루강/블랙송/사라제이/그리디어스/까이에/엘리제레/와우베이비/파츠파츠/엘아이이/옴니아트/데시벨/투앤드/아유/내추럴가든/더윤/플러스앤파트너스/에프앤에스홀딩스/에스에프랩/다미어패럴/

□ 선언내용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서

Green Fashion Initiative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패션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패션산업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기후 변화 위기 해소를 위한 탄소중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한다.

1.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섬유패션 제품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한다.

*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 30% 이상 증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3D 샘플링을 통한 과잉생산방지 등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ESG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함께 한다.

붙임4

프리뷰 인 서울 2022 개요

□ **PIS 2022 개요** * 국내 최대의 섬유 소재·원단 전시회(올해 23회째)

○ 기간/장소 : **8.24(수)~8.26(금)** (09:30~18:00), 코엑스 **A홀**

○ 전시규모 : **311개사 522부스** (국내 241개사, 해외 70개사)

- 참관규모 : 약 **9,000여명** (국내 8,000여명, 해외 1,000여명)

○ 행사구성 : 개막행사, 패션쇼, 세미나, 바이어 초청 상담회, Job Fair 등




○ 주관/후원 : 섬유산업연합회/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대구시, KOTRA

□ 개막식 행사

- 일시/장소 : '22. 8. 24(수), 11:00~11:55 / 코엑스 A홀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섬산련 회장, 서울시, 섬산련 회장단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1	(1')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1:01~11:03	(2')	개막 버튼 터치 및 사진촬영	주요 내빈
11:03~11:09	(6')	친환경 패션쇼(Next Gate)	더모델즈
11:09~11:10	(1')	전시회 개요 및 현황 브리핑	사회자
11:10~11:35	(25')	PIS전시장(A홀) 참관	"
11:35~11:40	(5')	전시장 이동(A홀 → E홀)	-
11:40~11:55	(15')	트렌드페어 전시장(E홀) 순시	진행(패션협회)

□ PIS 2022 주요 전시 품목

기업명	제품특징	제품사진
효성티앤씨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 ▶ 기존 석탄 대신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를 가공해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 (기존 스판덱스 대비 물 사용량 39%, 이산화탄소 배출량 23% 감소)	
태광산업·대한화섬	재활용 폴리에스터 ▶ PET병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친환경 Polyester로써, 국제재활용 표준인증 GRS 인증 제품 ▶ SSG 랜더스 구장 내 페페트병 수거 후 재활용하여 유니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기업들과 ESG협업 캠페인 진행 중	
신진텍스	재생섬유 ▶ 화학물질이 아닌 목화, 목재펄프를 원료로 한 큐프라, 텐셀 등 친환경 재생섬유	

<p>코레쉬텍</p>	<p>생분해 PLA 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탕수수,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제조한 PLA(Poly Lactic Acid) 생분해 섬유 ▶ PLA는 기초원료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폴리에스터의 15.3%에 불과하며 6개월 이내 90% 이상 자연분해 	
<p>케이준컴퍼니</p>	<p>오가닉코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화 씨앗부터 재배, 방적, 편직, 염색가공, 봉제까지 원료와 공정까지 친환경으로 제조한 오가닉 코튼 ▶ 2007년 국내 최초로 섬유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유기섬유 국제인 증인 GOTS 획득 	
<p>아이지에스에프</p>	<p>그래핀 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연에서 탄소원자 1개층을 분리한 그래핀을 첨가한 섬유로 항균/항바이러스/정전기 방지 등 기능성 우수 ▶ 기능성 의류뿐 아니라 전도성 소재, 필름 소재, 비행기, 자동차, 건축자재 등에 활용가능 	
<p>다원앤더스</p>	<p>구리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세균과 냄새, 먼지를 제거하는 구리섬유 ▶ 잦은 세탁이 필요없어 세탁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고 물과 전력 소비 절감 	
<p>지리산한지</p>	<p>한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 내세탁성, 경량성, 생분해성 등이 뛰어난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 한지사 ▶ 친환경적이며 섬유패션 소재, 홈텍스타일(침장류, 벽지), 웨딩드레스, 언더웨어, 인테리어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p>에이치제이</p>	<p>재귀반사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이 어느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광원의 방향으로 빛을 다시 반사하는 재귀반사제품 ▶ 소방용 방화복 등에 사용되는 산업 안전용 재귀반사체와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등에 사용 	